

2017 년 7 월-8 월호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캄보디아 - Andrew Lee(이순영)



미주 캄보디아 코커스 방문팀과 함께
연합사역방안에 대한 토의



현지교회방문
(Phum Phnov Methodist Church)



살롬 !

가족과 함께 정든 하와이를 떠나 캄보디아 도착한지 벌써 2 달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 근처에 보금자리도 구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새로운 학교에서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프놈펜 UMC 오피스

프놈펜 UMC 오피스는 연합 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 속해있으며 1998 년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선교 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 명의 UMC 파송선교사와 11 명의 현지스텝들이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잠깐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사역(Women's Ministry): 교육과 사회적 지원에 취약한 가운데 있는 시골마을의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을의 리더가 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역(CHAD, Community Health and Agriculture Development): 각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현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7 명의 CHAD 스텝들이 각각 지역을 맡아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역(우물개발, 화장실개선, 쌀저장, 축산교육, 재해예방, 건강관련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사역(Volunteer in Mission): 미국등 해외에서 오는 단기팀이나 개인을 현지교회와 연결해주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VBS 여름성경학교, 청소년수련회, 현지목회자 리더교육 등).

어린이사역(Street Children Ministry): 도시빈민촌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지난 2001 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사역, 학용품지원, HIV 가족지원, 장학금사역 등).

신학교사역(Educational Development): 캄보디아 감리교신학교를 중심으로 신학생을 지원하고 현지교회가 필요한 교육과 자료번역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역(Cooperative Ministry):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감리교단(한국,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과 함께 하나의 캄보디아 감리교단을 설립하기위해 동역하고 있습니다.



전임사역자인 로미목사님의 은퇴식에 모인
프놈펜 UMC 오피스 스텝과 가족들

건강의 회복!

8 월 둘째 주 한 주간은 캄보디아에 와서 처음으로 고열과 구토로 씨름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캄퐁툼이라는 시골마을교회를 방문하고 온 다음날부터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도 하고 처방해준 약을 먹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저도 가족도 모두 당황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몸이 거의 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방 감리교회에서 모인 200 여명의 중고등부 청년들.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Youth Camp at Siem Reap Methodist Church)



아이들의 눈은 반짝거렸고 그들의 미소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아원 방문, 프놈펜 빈민가)



Andrew Lee (이순영)
Email alee@umcmmission.org
Blog dreamcambodia.org
Advance #3022316



하나님의 나라

캄보디아는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씨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 등 역사적 유적지뿐만 아니라 각 지방마다 지역특산물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스봐이리앵이라는 지역을 3월-4월경에 방문하게 된다면 질 좋은 망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마지막주말에 저는 스봐이리앵 지역에 있는 한 감리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회 입구 문 옆에 큰 망고나무 두 그루가 먼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시즌이 지나서 망고의 맛은 나중을 기약했지만 뜨거운 땀약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 주었습니다. 담임목사님(Rev. Ouksaroeun)의 말씀이 20여년전 한 방문자가 \$20 불을 주며 망고 묘목을 사서 키워보라고 해 그때부터 이 나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작은 묘목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큰 나무가 되어 심을 주는 그늘을 제공하고 시즌때는 질 좋은 망고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되어주는 그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적은 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영적 위엄과 권위가 있었지만 그의 사역은 매우 겸손하고 조용한 방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온지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묘목이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때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곳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코너

이세형: 아내는 프놈펜 왕립대학에서 9월 26일부터 현지언어를 배울 예정입니다.

이은혜(8): 로고스 국제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아이입니다.

이은서(6): 원래 1학년으로 입학했다가 9월부터 월반하게 되어 2학년으로 올라 갈 예정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1. 저의 가족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나 SNS 소셜미디어로 사역지 소식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3. 온라인 후원: <https://goo.gl/4gvj3V> 방문 또는 Dreamcambodia.org
 체크 후원: Payable to **ADVANCE GCFA** and write **#3022316** on the memo line and mail to: Advance GCFA PO Box 9068 GPO New York, NY 10087-9088